

# 부녀자 30명 일본 술집에 팔아넘겨 일당 5명 붙잡아...취업이민으로 거짓서류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차정일 부장검사)는 4일 김성훈(46·프로바둑기사·서울 성북구 장위동 232-72), 박용웅(46·무직·서울 성동구 용봉동 190-10)씨 등 2명을 여권법 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용철(38·원미실업 대표·성북구 중곡3동 569-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훈씨는 지난 86년 11월부터 '장안동 아줌마'로 불리는 박이무개(40)씨로

부터 소개받은 이아무개(19·여·미용사)씨 등 미용사·이혼녀·실직 접대부 등 30여 명을 볼리비아에 취업 이민을 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화조, 나폴레옹 등 술집에 1인당 1백20만엔을 받고 팔아 넘겼다는 것.

검찰은 외무부 직원과 여행사가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 KBS 시청료 징수원 임금인상 연좌 농성

한국방송공사 시청료 징수원 5백여 명은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방송공사 본관 앞에서 기본급 7만원 인상, 상여금 6백% 인상지급, 1일 활동비 3천원 지급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 부녀자 11명 일본에 인신매매

### 취업 알선 내세워 접대부로 팔아넘겨

89.2.25  
일당 6명 구속 영장

서울 성북경찰서는 24일 유령 회사를 차려 일본에 취직시켜주겠다고 부녀자 11명을 일본 유업소에 접대부로 팔아넘겨 모두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재일 중국인 장길복(32·무직)씨와 한국인 김성원(33·무직·인천시 향동 라이프맨션 11동-201)씨 등 6명을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삼창플라자빌딩에 운하통상이라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서울 성동구 광장동 흥디스코클럽 무용수 전아무개(30·여)씨에게 4백만원의 월수입이 보장된 일본직장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일본에 사이다마현 유업소에 6백만원 받고 팔아넘기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1명을 팔아넘긴 혐의이다.

### 부당해고 철회 요구 농성 소신여객 운전자 등 30명

【부천=김영환 기자】소신여객 운전자와 가족 30여명은 24일 오전 7시30분께부터 부천시 신평2동 170-2 소신여객 차고에서 △부당해고 철회 △어용노조 집행부 퇴진 △13일 만근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 취업등 미끼 부녀자모집

### 일본에 접대부로 팔아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는 15일 국제 인신매매 조직인 (주)오이인터내셔널 대표 최희철(43)씨 등 2명을 여권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임휴채(3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중구 정동 15 정동빌딩 105호에 (주)오이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일본에 취업 또는 유학을 희망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일본에 가면 아르바이트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50여명의 부녀자를 1인당 1백만~2백만엔씩 받고 일본의 유업소에 접대부로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89.10.24

東 亞 日 韓

## 부녀자 百50명 日本송출

1명송출 5명수배 소개비명목 7千萬원 뜯어

서울지검은 21일 일본의

술집에 부녀자들을 중매원으로 일하도록 알선 송출해 주 소개비명목으로 7천여만 원을 받은 吳忠永씨(44·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대해 직업 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許尹씨(57)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吳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서울 을지로2동 樂園동 사무실에 연락을 두고 일본에 취업하러는 金道양(23) 등 20대 부녀자 1백50여명을 일본 요코하마의 술집에 1인당 1백50만 원을 받고 알선해준 혐의